

18 석굴암 문수보살

# 옛 그림 속 茶 이야기

## 한국 자생차 음다 연원 삼국시대로 추정

우리나라에서 음다는 언제부터 시작됐을까. <삼국사기>에는 신라 흥덕왕 3년(828년)에 당나라 사신으로 다녀온 대법이 차씨를 가지고 와서 지리산에 심어 성행하게 했다는 기록이 전해지고 있다. 하지만 선덕여왕대에도 차가 있었다는 대목을 보면 한국의 자생차와 음다의 연원은 그 보다 훨씬 이전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문수보살’, 불국사 석굴암.

신라뿐만 아니라 고구려와 백제에서도 어떠한 형태로든 차의 재배와 음다가 함께 이뤄졌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현재는 기록의 한계로 그 정확한 연원을 추정할 수 있을 뿐이다. 불교의 동진 후, 한반도에서는 사찰을 중심으로 해 차 문화가 번성하게 됐고 불전에 올리는 공양물(供養物)로서 차는 중요하게 다루어졌다. 이 시기 자장, 의상, 원효, 원광 등 위대한 스님들이 전국 각지에 명산대찰의 기틀을 마련했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의 불교는 중흥의 역사를 새로 쓰기 시작한다. 특히 불교의 오계에 영향을 받아 화랑의 지점이 된 세속오계가 삼국통일의 위업을 달성할 수 있게 한 사상적 배태가 됐으니 이 시기 불교의 원대한 위력도 미루 짐작할 수 있겠다. 이와 궤를 같이해 원효와 총담사, 기파랑과 월명 대사, 혜소, 진감 국사 등의 고승들이 차에 관한 많은 일화를 남기고 있어 불교라는 정신문화가 차를 만나면서 수많은 유무형의 아름다운 유산을 낳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후 통일신라시대 경덕왕의 재위기간(742~765) 동안에는 신라의 불교예술이 극진성기를 이루게 된다. 불국사, 석굴암, 다보탑, 석가탑, 황룡사종 등 많은 국보급 문화재들이 모두 이 시기에 만들어졌다. 그 중에서도 석굴암은 명실공히 최대의 걸작으로 통일신라시대의 불교미술을 대표한다. 주실에 배치된 장중하고 근엄한 모습의 본존불과 유연하고 우아한 모습의 보살상, 저마다 개성 있는 표현의 나한상과 사천왕 등에 이용된 조각수법은 종교적 믿음과 우아한 솜씨가 조화를 이뤘지만 재현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본존의 좌우 측면에 위치한 보살상 두 점은 이국적인 매력을 갖춘 독특한 모습과 아름다운 자

태로 보는 이를 한눈에 매료시킨다. 그 중 오른손에 보발(寶鉢)을 들고 있는 보살상은 화자들 간에 견해의 차이가 있지만, 미륵하생(彌勒下生)사상과 화엄사상에 의해 미륵불과 문수보살에게 차가 공양됐던 당시의 정황을 토대로 한다면, 문수보살의 도상으로 볼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관련

자료가 더욱 발굴돼야 하겠다. 당시 문수보살에게 차를 공양하는 일화가 <삼국유사>에 빈번히 등장한다는 점도 이 조각상을 찾았을 때 문수보살로 보는 데 있어 참고가 된다.

부처의 지혜를 상징하는 문수보살이 오른손에는 보발을 살포시 감싸고 수려한 자세로 서있다. 그윽한 눈빛으로 차를 바라보며 향기를 음미하고 있는 듯 보살의 얼굴은 더없이 고요하다. 이는 전신을 휘감고 있는 구슬장식과 보관의 화려함과 사뭇 대조적이다. 비칠 듯한 얇은 천의 속에서 드러날 듯 말듯한 암시적인 신체 곡선은 부드럽고 우아한 느낌을 전달한다. 어깨와 손을 지나 대좌로 흘러내리는 옷자락은 부드럽으면서도 유연한 선묘로 이뤄져 마치 바람에 날리고 있는 듯하다. 이처럼 석굴암의 문수보살상은 인체의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는 사실성을 종교적으로 이상화시킨 것으로서 숭고함과 신비함의 극치를 드러내었다.

때는 경덕왕의 재위시기, 슬며 추첨사의 삼화령의 미륵세존에게 차를 공양을 올리고 돌아오던 길에 우연히 왕을 만나 자신이 가지고 있던 차를 바쳤다. 이를 마신 경덕왕은 “차는 특별한 맛이 있어서 입속에서 이상한 향기가 가득히 피어났다(茶之氣味異常 中異香郁烈)”라 품평한 적이 있다. 이런 신령스러운 맛이 바로 우리나라 차 맛의 원형은 아니었을까. 그리고 그것을 얻을 수 있을 정도로 예민했던 미감(美感)이 곧 예술가의 미감(美感)이 돼 석굴암의 문수보살상에 자취를 드러내게 됐는지도 모를 일이다.

이랑 lang312@hanmail.net 동아아시아문화연구소 연구원

## 박재완 기자의 불교사진이야기

10 풍경(風景)



그날은 무비 스님을 뵈기 위해 부산 범어사를 찾았다. 보제루 처마에 걸린 풍경이 이경표처럼 연화실을 향해 흔들리고 있었다. 풍경소리를 따라 걷다보니 풍경소리는 절집의 또 다른 향기란 생각이 들었다. 다가가야 느낄 수 있는 가까운 사람의 향기처럼 풍경소리는 절집의 마당을 밟아야 들을 수 있는 향기였다.

연화실 마당에도 풍경소리가 들려왔다. 그리고 풍경소리 끝에서 스님이 기다리고 있었다. 스님은 몇 해 전에 큰 병을 이겨내고 인터넷에 ‘연화실’이란 카페를 열어 획기적인 전법의 장을 펴고 있었다. 귀한 법문을 듣고 연화실을 나왔다. 멀어지는 담장 너머에서 스님의 시선이 따라오고, 도량으로 불어온 바람은 향기가 다한 풍경을 다시 흔들고 지나갔다. 연화실 마당에도 풍경소리가 다시 들려왔을 것이다. 스님은 처음 머리를 깎았던 절집의 연화실 마당에서 풍경소리를 듣고 있었다.

## 옛 관화의 세계

### 이교가 법을 배우다 이교참문(李朝參問)

<석씨원류>에 등장하는 이 삽화는 당나라 때 동자를 대동하고 경전을 읽고 있는 유엄 스님에게 당주자사인 이교가 찾아와 가르침을 받고 있는 장면이 관각돼 있다. 약산유엄(藥山惟儼, 751~834)은 산서성 사람으로 성은 한(韓)씨이며, 17세에 광동성 서산(西山)의 혜조(慧照)에게 출가했으나 후에 석두희천(石頭希遷) 선사(禪師)를 만나서 비밀히 심법을 증득한 뒤 약산(藥山)에 주석했다. 이교(李朝)는 중국 당나라의 문인(772~841)으로 자는 습지(習之) 당송 심육가(唐宋十六家)의 한 사람으로, 스승 한유가 불교를 배척한 것과는 달리, 불교 사상을 채택해 심성(心性) 문제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보였다.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당주자사 이교가 유엄 선사의 덕행이 뛰어나다는 소문을 듣고 하루는 그를 찾아가다. 마침 선사는 나무 아래에서 경전을 읽고 있었다. 비록 자사가 와서 인사하는 줄은 알았으나 못 본 체 그냥 경전만 읽고 있었다. 자사는 선사의 교만한 태도에 화가 나서 성난 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얼굴을 보는 것이 이름을 듣는 것만 못합니다.’ 그리고는 웃을 휘젓고 떠나려 했다. 그때 유엄 선사가 말했다. ‘태수께서는 어찌해 귀

만 귀하게 여기고 눈을 천하게 여깁니까?’ 그러자 태수가 공손히 몸을 돌려 물었다. ‘도가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유엄 선사가 손으로 위를 가리키고 또 아래를 가리켰다. 그리고 나서, ‘태수께서는 알겠습니까?’ 하고 물었다. 태수가 몰라서 고개를 저었다. 유엄 선사가 말씀하시기를, ‘구름은 푸른 하늘에 있고 물은 병에 있는 것일세’라고 했다. 그때 자사 이교는 크게 깨닫고 오도송을 읊었다. ‘몸 형상 연성해 학의 형상과 짝 이룰 수 있어 일천 그루 소나무 아래에는 두 할의 경이 있도다. 내가 와서 도를 물으니 다른 말씀 없었고 구름은 푸른 하늘에 있고 물은 물병 속에 있다 하였네.’ 이 내용을 무비 스님은 ‘한 번은 구름을 가리키고 한 번은 병을 가리킨 그 간결하고 소박함과 탈속함, 우주의 무게와 같은 정적은 차라리 사람의 숨을 멎게 한다. 모든 것이 있을 자리에 있는 것. 그것이 도다. 저절로 그러한 것이 도다. 공연히 흔들어서 평지에 풍파를 일으키고 도를 떨게 하지 말라. 참으로 선기(禪氣)의 고고함이 물씬 묻어나다’라고 풀어쓰고 계신다. 모든 것이 있을 자리에 있는 것이 도라는 말씀을 깊이 새겨 본다. 선학 스님(경주사 고관화박물관 관장)

### 시가 있는 도량

■ 검은등뼈꾸기 세상 끝을 울리네

이젠 대팻밥 같은 구름 몇 장 남아있다.  
바람은 능숙한 목수, 구름 허리 대패질하고  
경쇠도 잠재운 노을이 대웅전을 금칠한다.

돌아가라 돌아가라, 울부짖는 동박새야.  
동백숲 은녹한 길 부도 밭에 접어들면  
거북이, 물고기, 계가 서방정도 밀고 가네.

세월밥 천 년 먹으면 땅끝 바다도 귀 여는지.  
홀짝 벗고 홀짝 벗고, 짹짹 까고 짹짹 까고,  
무심한 검은등뼈꾸기 세상 끝을 울리네.

미항사 어스름은 눈이 시린 푸른빛이다.  
울러 보나 내려 보나 눈물 묻은 푸른 이내  
파도에 발목 적시는 가을은 다시 돌아오고.

-윤금초, <유심> 11·12월호



고관화박물관 소장 <석씨원류(釋氏源流)> 중 이교참문(李朝參問) 편. 불암사 판 1673년 간행, 반각(半角) 27.2×18.0cm

# 철저하게 개인지도 받는 것과 동일한 역학(사주명리, 사주명)의 시청각 교재 DVD(디브이디) 출시 - 궁중비법 - - 비매품 책자, 요점자료 동봉 -

어렵다는 역학을 누구나 쉽고 빠르게 한달 공부하면 완성할 수 있습니다. **사주명식을 작성하는 즉시 확실하고 선명하게 운명이 보입니다. - 그레어 역학입니다 -** 처음부터 끝까지 반복하면서 보고 듣고 이해하며 필기하고 보충자료와 책자를 숙지하면 됩니다. 10만원 정도의 DVD 재생 기계를 구입하여 TV에 연결하여 보시면 됩니다. 역학에 대하여 전혀 지식이 없는 초보자라도 아주 쉽게 배워지며 단기간에 훌륭하고 정확하게 달변으로 통변하며 운명감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얻어지는 그야말로 신비한 사주명리의 궁중비법입니다. 본 교재 저자인 저 백운성수는 조선조 9대 임금인 성종대왕의 19대 후손으로서 옛날 종친들에게 비급으로 전해지며 일반에 알려지지 않았던 궁중비법 사주명리학을 대(代)를 이어 정통으로 전수 받아 여러제자들에게 개인지도를 하여 현재는 국내외의 400여명이 왕성히 활동하고 있으며 그 중에는 많은 스님들도 역학에 해안이 열려 큰 명성을 얻고 중생제도의 방편으로 쓰이며 크게 불사를 이루십니다. 역학(사주, 신수, 궁합, 택일, 애정, 재운, 관재, 자녀운, 기타 모든것)은 실제로 어려운 것이 아닌데 스승이나 책을 잘못 만나면 중도에 암흑의 망망 대해에 빠져서 평생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3년해도 모르겠다, 10년은 배워야 된다. 무지하게 어렵다”라는 말을 합니다. 이교재는 이런 불확실성을 확 짚어내는 제대로 된 스승입니다. 전혀 염려하지 마세요. 순간 선택이 평생을 좌우합니다. 이 DVD에는 필자가 20여년간 국내외 수백명의 제자를 역학에 도통하도록 철저히 개인지도 해온 그대로를 총 26부(26시간)에 가감없이 실전 사주풀이 다수와 함께 담았습니다. 그 동안 배운 뜻은 있었으나 국내외 원거리사정, 수강순서 늦어짐, 고액의 수강료, 기존 업을 하는 관계로 알려짐이 부끄러움 등으로 기회를 기다리던 분들에게 최고의 기회와 광명이 될 것입니다. 현재 본 DVD교재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전국에 산재한 스님, 보살님, 철학원을 운영 하시고 있지만 적중률이 낮아서 성업 안되는 분, 퇴직후 장래직업으로 역학을 하실분, 초심자, 순수연구자, 학생 등 다양한 부류인데 전부가 하나같이 찬사와 감사의 메시지나 전화를 해 주시고 정말 제대로 된 배움의 길을 선택한대 대해 천만다행으로 생각하며 안도하고 행복해 합니다. 본 교재로 사주명리학을 완성하신 많은 분들이 이미 방문하셔서 대단한 감사를 표시하였으며 풍수지리학을 수강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본 저자도 이 DVD교재로 인해서 수많은 분들이 진정한 역학적 개인이 그렇게 신속히 열려가는데 대해 놀라움을 금치 못하며 큰 기쁨과 보람을 느낍니다. 한글만 아시면 되며 학력과 관계없습니다. 이는 한자는 22자이니 저절로 배워집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선택하세요. 아주 쉽게 단기간에 완성하며 평생의 훌륭한 길잡이가 됩니다. 불교 교리로 부터 시작되는 이론의 장엄한 전개는 당신을 견성에 이르는 기쁨을 맛보게하고 육바라밀 중 하나를 행하도록 지정해주는 당부로 운명감정이 끝이 나며 스스로와 친지들의 사주를 감정하면서 그 적중됨에 탄성을 발하게 됩니다.

이 교재를 만나는 사람은 큰 복을 받습니다. 장인이 눈을 떠서 대광명을 보듯이 신속하고 틀림없는 역학적 개인에 감동의 눈물을 흘립니다. 감사전화를 수 없이 받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주문하십시오.

- ◆ 구입금액 : 일시불은 135만원, 할부가격은 150만원 (본납방법 : 인도금 80만원, 한달후 40만원, 두달후 30만원)
- ◆ 계좌번호 : 농협 351-0001-3753-03 (예금주 : 대한불교일월중 추명사)

진가가 증명되었습니다. 발매 6개월만에 900여명이 본 교재로 공부하시고 반수 이상이 이미 완성되었습니다. 이제는 궁중비법입니다. 책임집니다. 망설이지 마세요.

**인터넷으로 공부하십시오**

- http://www.esaju84.co.kr
- 인터넷 주소창에 한글로 **성수철학원 또는 대구철학원** 을 입력해보세요.
- DVD 동영상도 시청할 수 있습니다.

**사주통달책임개인지도 예약 받습니다**

- 교육기간 : 누구나 한달 완성 (국내외 제자 400명 왕성히 활동중)
- 완전초보자도, 해도 해도 안되는분 사주 작명 궁합 택일 신수(30일 완성) 풍수지리(양택, 음택)포함 (40일 완성)
- 한달만에 모든 것 완전 통달됨. 교육이수 후 월 최저 250만원 보장
- 전화감정 대환영(유료) 전형 합격자 자격증, 회원증 수여함(회원은 특혜있음)
- ※ 전국 최대 회원양성 교육기관임 ※

- 남몰래 한달 공부하여 해성과 같이 나타나십시오 - 개인지도 받으실 분 숙식하시며 쾌적하게 공부할 수도 있습니다



사단 대 한 불 교 법인 사주명리 연구학회 추 명 사 백운 성수, 도영 합장

대구광역시 동구 중대동 450번지 전화 053)255-4784, 256-4784 / 휴대폰 018-531-2237, 011-9583-6161